

서예지 학폭 이어 갑질 논란…등돌리는 광고계

대학 학력위조·스태프에 갑질 의혹
서예지 모델 일부 브랜드 광고 삭제
파문 확산되자 김정현 따로 사과문

연기자 김정현과 서예지 관련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김정현과 서지혜의 ‘열애설’로부터 시작된 파문이 김정현은 물론 그의 과거 연인이었던 서예지에 대한 갖은 논란을 불러오면서 출연작과 연예계 일부 인사들까지 후폭풍을 맞고 있다. 이에 김정현이 14일 사과했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들의 향후 연예활동에도 먹구름이 잔뜩 낀 형국이다.

● ‘논란과 의혹’ 해명…, 그래도

김정현과 서예지는 최근 불거진 ‘김정현·서지혜 열애설’ 이후 곤욕을 치르고 있다. 김정현이 “사실이 아니다”며 해명하는 과정에서 소속사 전속계약 분쟁, 2018년 MBC ‘시간’ 출연 당시 서예지와 교제 등 사실이 알려졌다. 또 ‘시간’ 속 멜로 장면을 기피하며 중도하차했다는 의혹이 커졌고, 당시 사태가 서예지의 요구 때문이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상황은 서예지의 학교폭력 가해·스페인 대학 학력 위조·스태프에 대한 ‘갑질’·드라마 연출자와 관계 등 갖은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에 그는 13일 “학폭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스페인 마드리드 콤플루텐세 대 합격했지만 이후 활동으로 다니지 못했다”고 각각 해명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갑질’ 의혹은 다른 시선을 지닌 목격



연기자 김정현(왼쪽)과 서예지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 김정현이 주연한 MBC ‘시간’의 태도 논란과 함께 서예지의 스태프 ‘갑질’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자가 등장해 온라인상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서예지는 “‘시간’ 논란은 관련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해명에도 서예지가 모델로 나선 일부 브랜드가 광고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는 등 거리두기에 나섰다. 21일 개봉하는 주연작 ‘내일의 기억’ 측도 곤혹스런 상황에 놓였다. 당초 13일 오후 열린 시상식에 그가 참석기로 했지만 현재 논란과 의혹에 대한 부담감에 결국 불참하면서 홍보프로모션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 ‘향후 활동에 차질?’

파문 이후 침묵해온 김정현이 결국 14일 오후 사과문을 냈다. 그는 ‘시간’ 논란에 “개인적 문제로 불미스러운 일을 자초했다. 출연진과 스태프에게 죄송하다”며 뒤늦게 사과했다. 이어 전속계약과 관련해 분쟁 중인 “소속사 오앤엔터테인먼트에 도의적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잇단 입장 및 사과 표명에도 이들의 향후 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서예지의 신작인 OCN ‘아일랜드’에 불뚱이 튀어 실제 출연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파문을 지켜보는 연예계에서는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날 한 연예관계자는 “일거수일투족이 대중의 시선을 받는 연예인일수록 다양한 논란과 의혹에 휘말릴 수 있다.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에 관한 것이라면 충격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논란이 두 사람의 활동 이력과 관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행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봉준호·윤여정, 인종차별에 목소리 낼까

아카데미 시상식 나란히 초대 받아
아시아계 증오 범죄 관련 언급 관심

배우 윤여정과 봉준호 감독이 최근 미국에서 심각해지는 아시아계 증오 범죄와 인종차별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26일(이하 한국시간) 제93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 각각 여우조연상 후보와 시상자로 나선 두 사람이 이 무대에서도 관련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4일 미국 ABC와 테드라인 등 외신에 따르면 봉준호 감독은 최근 현지 대학 강연에서 아시아계 증오 범죄와 인종차별 문제를 “지켜보는 것은 매우 두렵다”면서 “영화인들이 이에 맞서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봉 감독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채프먼대 영화·미디어 예술 칼리지의 온라인 마스터클래스 수업에 강사로 나섰다.

그는 미국에서 발생한 아시아계 증오 범죄 등을 언급하며 “지금 영화산업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된다”면서 “영화를 만드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사회문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때문에 더 용기를 내 문제에 맞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영화 ‘기생충’과 ‘스파이크 리 감독의 ‘폭박로 살아라’ 등을 예로 들며 “사회 표면 아래에서 끓어오르는 문제를 표현하기 위해 영화인들의 통찰력을 쓰는 것이다”면서 자신 역시 ‘기생충’을 통해 “그런 접근방식을 취하려 했다”고 말했다.



봉준호 감독

윤여정도 우회적으로 관련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최근 미국 포브스 인터뷰에서 “LA에 사는 한국계 미국인 아이들이 아시아계 증오 범죄 때문에 나의 미국행을 걱정한다”고 밝혔다. 인터뷰에서 그는 아들이 “길에서 다칠 수도 있다. 그들(증오 범죄 가해자들)이 노인을 노린다”는 우려를 전했었다며 “이건 끔찍한 일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미나리’로 아카데미 여



윤여정

우조연상에 후보로 오른 윤여정은 시상식 참석을 위해 13일 출국했다. 봉준호 감독도 시상자로 무대에 나선다. 각각 ‘미나리’와 ‘기생충’으로 많은 수상 경력을 지닌 두 사람이 그동안 영화가 지닌 사회적 의미 등에 빛난 수상 소감 등으로 화제를 모아 왔고, 아시아계 증오 범죄 등에 대한 발언을 내놓은 만큼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나란히 같은 목소리를 낼지 관심을 끈다.

윤여수 기자



‘4세대’ 아이돌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있지·트레저(위부터)가 잇달아 해외 무대로 발길을 옮긴다.
사진제공 | 빅히트뮤직·JYP엔터테인먼트·YG엔터테인먼트

BTS·블랙핑크 뒤를 잇는다 ‘4세대 아이돌’ 글로벌 속으로

있지·TXT, 美 시장 노크…트레저, 日 정조준

‘4세대’ 대표 아이돌 그룹들이 본격적인 글로벌 행보에 나선다. 국내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두각을 나타내온 만큼 해외무대에서도 영향력과 입지를 키워나갈 기세다.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의 뒤를 잇는 글로벌 스타 탄생의 예고하면서 세계 팬들의 관심도 모으고 있다.

결그룹 있지(ITZY)가 30일 오후 1시(미국 동부시간 0시·이하 한국시간) 네 번째 미니음반 ‘게스 후’(GUESS WHO)를 전 세계 동시 발표한다. 1월 히트곡 ‘낯 사이’를 영어 버전으로 편곡해 선보이며 미국 음악시장의 문을 두드렸지만, 앨범을 전 세계 동시 발매하기는 처음이다.

이번 앨범은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의 대표 프로듀서 박진영이 만든 ‘마.피.아. 인 더 모닝’(In the morning)을 타이틀곡으로 내세웠다. 스타 작곡가 심은지와 JQ가 만든 ‘소리 낯 소리’를 비롯해 ‘낯 사이’의 코비가 작사·작곡한 ‘키딩 미’, 자라 라스·리틀 믹스 등 세계적 아티스트와 협업한 알렉산더 파블리치 등 글로벌 작곡진이 참여한 ‘슛!’ 등도 담겼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도 미국 토크쇼에 첫 출연하며 영역 확장에 나선다. 14일 소속사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이들은 17일 미국 유명 토크쇼 ‘엘렌 디제너러스 쇼’(엘렌쇼)에서 세 번째 미니음반 ‘미니소드1:블루 아워’의 수록곡 ‘날씨를 잃어버렸어’ 무대를 선보인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데뷔 전부터 방탄소년단의 ‘직속 후배’로 화제를 모으며 해외시장에서도 눈길을 끌었다. 2019년 3월 발표한 데뷔 음반 ‘꿈의 장:스타’와 일본 정규 1집 ‘스틸 드림링’을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 진입시키며 성장 가능성을 높였다.

이들에 앞서 해외에 진출한 트레저도 일본에서 기세를 과시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현지 데뷔 앨범으로 오리콘 일간에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정상을 차지했다. 첫 번째 일본어 정규앨범 ‘더 퍼스트 스텝:트레저 이펙트’(THE FIRST STEP:TREASURE EFFECT)로 오리콘 주간 앨범 차트와 현지 최대 음악 사이트인 라인뮤직 앨범 톱100 차트 1위에 올랐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2PM 따로 또 같이…옥택연-준호 사극, 우영-찬성 예능 대결

그룹 2PM의 멤버 준호·우영·찬성·닉쿤·준케이·옥택연이 ‘따로 또 같이’ 활동할 준비에 나선다. 준호가 3월 전역해 태국 국적인 닉쿤을 제외한 멤버 모두가 병역을 마치면서 안방극장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동시에 그룹 완전체로 팬들 앞에 서기 위해 틈틈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들 가운데 옥택연의 활약상이 눈에 띈다. 방영 중인 tvN ‘빈센조’에서 악덕기업 바벨그룹의 회장 역을 맡아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선보였던 반듯

한 이미지를 깨고 악역으로까지 영역을 넓혔다는 호평을 얻었다. 닉쿤과 찬성이 최근 특별출연해 드라마 화제몰이와 함께 옥택연에 힘을 보탰다.

이어 준호도 안방극장에 복



귀한다. 올해 가을 방송할 MBC ‘웃소매 붉은 끝동’에서 정조를 연기할 예정이다. 공교롭게도 옥택연이 차기작으로 검토 중인 KBS 2TV ‘아사와조이’와 비슷한 시기에 편성되면서 멤버 사이의 사극 연기 대결이 성사됐다. 옥택연은 탐관오리를 소탕하는 암행어사로 출연한다.

다른 멤버들도 각기 활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전역한 우영과 1월 제대한 찬성은 최근까지 SBS ‘런닝

맨’, MBC ‘나 혼자 산다’ 등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했다. 닉쿤도 주연 영화 ‘홍콩 러브 스토리’의 촬영을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그룹으로서도 무대에 나서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멤버들은 최근까지 바쁜 일정을 쫓아 음반 회의를 거둬하는 등 완전체 활동에 대한 열의를 드러내고 있다. 옥택연과 찬성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안에 2PM으로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